

F1대회 출발부터 불안

중양부처 인력 빠진 채 사무처 '반쪽 출범'

공동조직위원장도 한달째 공석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출발부터 불안하다. F1대회의 성공 개최를 이끌어 갈 조직위원회 사무처가 중양부처 인력이 빠진 채 당초보다 축소된 채 구성된데다, 공동조직위원장도 선임하지 못하는 등 '반쪽'상태에서 대회 준비를 하게 됐다.

3일 전남도와 F1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 사무총장, 대회운영본부장 등을 포함한 조직위 사무처 인력 32명의 인선이 마무리된데 이어 오는 11일 전남개발공사에서 '조직위 사무처 개소식'을 갖고 본격 출범한다.

사무처는 1본부 2부 6팀 체제로 이뤄져 전남도가 당초 구상했던 51명 수준의 2본부 5부 12팀 체제보다 크게 축소됐으며,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조직위원장으로, 이상면 전남도 정부부지사를 집행위원장으로 하고 사무총장(2급)에는 박준문 한국체육개발원 감사를 내정했다. 주동식 F1대회 지원본부장은 대회운영본부장(3급)

을 맡았다.

대회운영본부장 밑에는 서기관급 인 기획홍보부장과 대회협력부장을 두고 각 부 밑에 사무관 3명과 6급이하 직원 10명씩을 배치했다. 그러나 사무처는 당초 예정됐던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양부처 인력이 한명도 없어 대회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당시 사무처를 구성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에서 3급 1명과 4급 2명, 5급 3명 등 모두 6명을 지원받아 대회운영본부 외에 기획홍보본부를 별도로 조직해 사무처를 51명 수준의 2본부 5부 12팀 체제로 꾸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G20 및 대통령 주요 정책에 대한 TF팀 인력수요 증가로 중양부처 인력의 외부과정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인력 파견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아 F1대회 조직위의 중앙 인력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전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인력을 활용, 국가적 안전 대책을 마

련하거나 경기장 건설비 및 대회 운영예산 확보, 전국에서 펼쳐지는 F1대회 세일즈 마케팅에서 도움을 받겠다는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고 인원이 축소되면서 업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포퓰러인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98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을 제외하면 정부 출연금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박 지사와 공동으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이끌어갈 공동조직위원장 선출도 여지껏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G20 정상회의와 더불어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이벤트인 F1대회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F1대회가 열리는 목포·영암·해남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고 외부 전문 인력을 총원하는 방법으로 대회 준비 및 개최 열기 확산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청 직원들이 3일 오전 무안군 삼향면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범도민 금호타이어 구매 운동'에 동참,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다.

/무안=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번엔 '스포티지 R'

기아차 광주공장 신차 공개...대박 예감

"스포티지 신화를 이어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할 스포티지 후속 모델 신차 SL(프로젝트명)에 하달한 특명이다.



3월 기아차는 다음달 광주공장에서 생산·출시 예정인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SL의 차명을 '스포티지 R'로 정하고 외관을 공개, 스포티지·쏘울에 이은 글로벌 대박의 시동을 걸었다.

기아차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스포티지의 브랜드 파워를 이어가고, 쏘렌토 R과 함께 새로운 혁신(Revolution)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차명을 '스포티지 R'로 결정했다.

'스포티지 R'은 기아차가 2004년 8월에 출시한 뉴 스포티지에 이어 6년 만에 출시하는 후속 모델이다. 뉴 스포티지는 출시 이후 최근까지 모두 91만대를 국내외의 시장에 판매한 광주공장 최고의 히트작이다.

기아차는 스포티지R에 고성능 클린디젤 2.0 R을 장착, 저탄소 시대에 어울리는 친환경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살렸다.

외관은 2007년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선보인 콘셉트카 '큐'(Kue)를 기반으로 '진보적 스타일의 도시형

CUV'를 추구하고 있다. 앞모습은 LED(발광다이오드) 라이트 가이드를 적용한 블랙베젤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됐다. 옆모습은 속도감을 살릴 수 있도록 날렵한 지붕 라인을 강조했으며, 18인치 대구경 럭셔리 휠을 적용해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스타일을 완성했다. 뒷모습은 '직선의 단순함'을 바탕으로 리어컴비넬프, 분리형 힌시그널램프 등을 적용해 고급스럽고 개성있는 이미지를 연출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다음달 쏘울 증산 공사를 마무리하고 신차 스포티지 R이 출시되면 사상 최초로 50만대 양산 공장이 된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스포티지 R은 디자인, 신기술, 성능 등 모든 부문에서 국내외의 경쟁 차종들을 뛰어넘는 기아차의 '아심작'이라며 "스포티지, 쏘울에 이어 기아차의 글로벌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금호타이어 구매 붐물

전남도 공무원들 일괄교체 행사

광주시·시도교육청도 운동 동참

전남도가 금호타이어 제품구매운동에 돌입하고, 광주시와 시·도 교육청이 직원들을 상대로 타이어 교체 수요 조사에 나서는 등 지역민들의 금호 구하기 운동이 본격화됐다.

전남도는 3일 무안군 삼향면 도청 앞에서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범도민 금호타이어 일괄구매 및 교체행사'를 개최했다.

'지역기업 금호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에는 도 본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남개발공사 등 전남도 유관기관 직원과 일반인

들도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진행됐다.

금호타이어는 이동 정비차량 2대와 정비사 5명을 파견, 타이어 정렬상태 등을 무상점검해주고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공장도 가격보다 5% 싼 가격에 타이어를 판매했다. 금호타이어는 통상 시중에서 타이어 한 개당 4천~5천 원 가량 받는 장차 비용을 받지 않았다.

전남도 공무원들이 이날 일괄 구매 한 타이어는 200여 개로, 당장 타이어를 바꿀 필요가 없는 공무원 140여 명

은 쿠폰을 대신 받고 나중에 교체하는 방법으로 동참했다.

전남에서는 분청에 이어 10일 곡성군청에서 타이어 교체 행사가 열리는 등 22개 시·군청에서 '금호타이어 구매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공무원들을 비롯한 전남도민의 작은 정성이, 어려움에 빠진 지역기업의 회생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수도 이날부터 분청 직원들을 상대로 타이어 교체 수요 조사를 시

작했다. 또 5개 구청과 함께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공단을 비롯한 광주시 산하 유관기관, 그리고 전남대와 조선대, 호남대 등 지역 대학에 '소속 기관 및 직원 차량의 타이어를 금호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권유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김용환 광주시 경제산업국장은 "광주시는 물론 5개 구청과 산하기관들의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타이어 교체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금호 타이어 구매 희망자가 결정되면 행사 방법과 가격 등을 금호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타이어 교체 수요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관용차량도 타이어의 교체 연한 등을 파악해 금호타이어로 일괄 교체하기로 했다.

/장필수·홍행기·박진표기자 redplane@

삼성 임원들은 기아차를 좋아해

85% 오피러스·K7 선택

삼성그룹 신규 임원의 85%가량은 기아차 세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지난해 12월 정기 인사로 승진한 신규 임원 260명에게 임원용 승용차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84.6%에 달하는 220명이 기아차의 오피러스와 K7를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아차의 대형 세단 오피러스는 124명(47.7%)이, 준대형 신

차인 K7는 96명(36.9%)의 임원이 각각 선택했다. 특히 K7는 지난해 11월 출시돼 현재 계약하면 1개월 이상 기다려야 받을 수 있지만 임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프리미엄급 모델이 출시된 오피러스는 지난해에 이어 삼성 임원들의 선호 차량 1위를 지켰다. 삼성 임원들은 이밖에 르노삼성차의 SM7(17대), 쌍용차의 체어맨(14대), 현대차 그랜저(5명) 등을 선택했다. /연뉴스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2010. 3. 1(월) 09:30~10:00 (대정소 출발 09:00)

주최: 광주일보, 후원: 광주광역시, 전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광역시노조, 광주광역시노동조합, 광주광역시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광역시농수산물판매협회, 광주광역시농수산물판매협회, 광주광역시농수산물판매협회

출발지: 대정소 (광주광역시 남구 대정1동 111-1번지)

종료지: 대정소 (광주광역시 남구 대정1동 111-1번지)

참가비: 10,000원 (의류비 포함)

문의: 062-222-8111